

중국, 예산늘려 해·공군력 강화에 주력

중국이 해·공군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어 동북아시아에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지난 3월6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회의의 제3차 회의에 보고된 중국의 국방예산은 6백28억7천만 원(약6조 원)으로 지난해보다 21.25%나 증가했다.

이는 지난 79년 중-베트남전쟁 이래 평시로는 최대폭으로 2년연속 20% 이상의 증가율을 보여 주변국들로부터 경계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중국은 두자리 수 이상의 인상으로 막대한 국방비를 지출하며 무기의 현대화를 서두르고 있다.

특히 항공모함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추진중인 해군 발전계획은 구축함과 보급함, 프리깃 초계정 등의 국내생산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 러시아측과 구축함 4척을 도입키로 합의한데 이어 신형잠수함 18척을 2000년까지 도입해 잠수함의 현대화를 달성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92년 러시아로부터 수호이27 전투폭격기 26대를 도입하고 일류신76 중거리 수송기 10대를 사들여 공군력 강화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게다가 중국공군은 전투기를 이용한 장거리작전을 위해 공중급유기의 자체 생산을 계획하고 있



CPMIEC HQ-61 지대공 미사일

다고 알려지고 있다.

중국 해·공군은 장비개선으로 작전수행 범위가 남중국해까지 확대되고 해군력은 연안지역에서 원양해군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ROMEO급을 변형한 중국의 WUHAN급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C801 대함미사일

